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38:5-6  
 2026년 5월 24일 오전 11시

##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 주역 도우소서 >

모세와 히스기야는 모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뒤쫓아 오는 애굽의 병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깊은 물 가운데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목도한 모세는 곧바로 찬송하였습니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출 15:1). 모세의 찬송은 사람의 지혜나 용맹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권능만을 찬양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앗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유다는 이미 꺼져 가는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나라의 재물과 식량은 바닥이 났고, 예루살렘은 거대한 제국 앞에 숨조차 쉬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앗수르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치셨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앗수르 진영은 송장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칼과 창으로도 이루지 못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쓰러진 앗수르의 진영에는 병거와 무기와 금은보화와 군량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신 원수의 진영으로 나아가 그 재물과 무기들을 노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와 히스기야의 길은 갈라집니다.

## 1. 구원을 잊어버린 히스기야

모세는 홍해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였습니다. 반면 히스기야는 훗날 바벨론 사자들 앞에서 그 보화를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인간의 교만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조용히 보여 줍니다. 모세는 홍해 건너편에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서는 그러한 찬송이 들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서, 역대서, 이사야서 어느 곳에서도 앗수르의 멸망 이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쉽게 그것을 자신의 지혜와 행운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원수의 진영에서 얻은 재물을 들고도,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후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사 38:9).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그 감사와 찬양이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은 직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병에서 회복된 이후에야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 군대가 물러간 그 무렵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1 절).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당시 히스기야는 인생의 한창 때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개혁하였고, 앗수르의 위협 속에서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하였으며, 이제 다시 나라를 세워 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절절히 나타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10 절). 히스기야는 자신이 아직 인생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었고,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 있다고 여겼는데, 이제 남은 생애가 갑자기 잘려 나가는 듯한 절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 2. 죽음의 문 앞에 선 히스기야

앗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두려움은 성벽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죽음이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의 적은 피할 수도 있지만, 몸 안에서 자라는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다시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뵈올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리니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11 절). 히스기야에게 죽음은 단지 숨이 끊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뵈지 못한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 히스기야는 그 죽음의 선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 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13 절). 여기서 ‘조석(朝夕)’은 아침과 저녁을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아침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 히스기야를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의 뼈를 으스러뜨리듯, 죽음이 그의 몸과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2 절). 이전까지 히스기야는 언제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왕이었습니다. 앗수르의 위협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산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 3.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는 더 이상 성전까지 걸어 올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중기로 인해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극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몸을 돌리는 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등진 채, 침상 위에서 겨우 몸만 돌린 채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3 절).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려 했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모세 율법에 따라 아버지가 유대 가운데 만들어 놓은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였던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교만한 외침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보려 했던 삶을 기억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16 절).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죽을 병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20 절).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왕은 이제 다시 성전에 올라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서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할 것이라 탄식하던 입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겠다는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의 기도가 감사의 노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사 38:4).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고”(사 38:5).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십오 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사 38:6). 비록 산헤립은 물러갔지만, 앗수르는 여전히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산헤립의 뒤를 이은 에살핫돈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미래까지 친히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눈물로 드렸던 기도와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절망과 은혜를 하나의 감사의 노래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공휼을 보여 줍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야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만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지는 자를 다시 붙드시고, 죽음의 문턱에 선 자를 공휼로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단지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눈물을 아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